

김하성, MLB 통산 100타점 돌파...2루타·결승 3점포 작렬

신시내티전서 2안타 3타점 2득점 '대활약'

소속팀 샌디에이고, 8-3 승리...3연승 달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8)이 19경기 만에 대표를 작렬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5회말 홈런을 때려냈다.

3-3으로 팽팽히 맞선 5회말 2사 1, 2루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신시내티 좌완 알렉스 영의 5구째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리자 이를 놓치지 않았다.

김하성은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01.2마일(약 163km)였고, 비거리는 108m로 측정됐다.

김하성이 홈런을 친 것은 지난달 10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22일, 19경기 만이다. 빅리그 3년차로, 전날까지 통산 99타점을 기록 중이었던 김하성은 홈런으로 3타점을 더하면서 통산 타점 수를 102개로 늘렸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MLB 월드 투어 2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한 김하성은 1회말 2사 1, 3루에서 유격수 땅볼로

몰려났다.

그러나 두 번째 타석에서 장타를 뽑아냈다. 샌디에이고가 2-3으로 끌려가던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좌측선상 2루타를 날렸다.

후속타자 트렌트 그리삼이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리면서 김하성은 동점 득점을 올렸다.

홈런을 날린 뒤인 8회말에는 2사 1루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김하성은 시즌 타율을 0.209에서 0.222(90타수 20안타)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27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4경기 만에 멀티히트다.

김하성의 홈런으로 리드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8회말 2점을 보태 8-3으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남 테니스 1위 조코비치

US오픈 출전 길 열렸다



지난해 백신 미접종 때문에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올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정부는 오는 12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조코비치는 2년 만에 US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US오픈은 8월 28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테니스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조코비치는 2011년과 2015년, 2018년 US오픈에서 정상에 섰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1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탓에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호주 정부와 법정 싸움 끝에 추방 조치된 조코비치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백신 미접종 여파는 이어졌다. 미국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만 입국을 허용하면서 미국 입국 길이 막힌 조코비치는 지난해 US오픈에 나서지 못했다.

올해에도 3월 미국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 BNP 파리바오픈, 마이애미오픈 출전이 불발됐다.

조코비치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 출전을 위해 미국 출입국 관리 당국에 특별 입국 허가를 요청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오른쪽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은 조코비치는 현재 진행 중인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마드리드오픈에 불참했다.

부상에서 회복하면 조코비치는 이달 28일 막을 올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 오픈에 출전할 전망이다.

김효주, 여자골프 세계 10위권

재진입...유해란 44위로

김효주가 여자골프 세계 10위 안에 재진입했다. 유해란은 4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김효주는 2일(한국시간) 발표된 톨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9위에 올랐다.

지난주 11위였던 김효주는 지난 끝난 LPGA투어 JM이글 LA챔피언십에서 공동 17위에 오르면서 랭킹 포인트를 쌓아 2계단 올라섰다.

같은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오른 유해란은 9계단 상승해 4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세계 3위를 유지했다. 넬리 코다가 1위, 리디아 고가 2위, 릴리아 부가 4위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리스토프앤씨 제45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다연은 전주 125위에서 53계단 오른 72위에 올랐다.

뉴시스

2022-23 시즌 데이원 점퍼스 로고

프로농구 고양 캐롯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고양 데이원 점퍼스'로 구단명이 바뀌었다.

'캐롯', 역사 속으로...구단명 변경 승인

고양 데이원 점퍼스로 바뀌어...아시아쿼터 선수 외국인선수 방식 적용

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캐롯은 2021-2022시즌이 끝난 뒤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법인 데이원 스포츠가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한 구단이다. 캐롯손해보험을 네이밍 스폰서로 유치하면서 2022-2023시즌을 '고양 캐롯 점퍼스'라는 이름으로 지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캐롯손해보험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이 종료됐다. 임금과 대금 체불 등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거론되면서 후원하는 측에서 더 이상 네이밍 계약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전했다. 시즌이 진행 중이라 구단명을 곧장 바꾸지는 못했다. 캐롯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 시즌을 마치면서 KBL 이사회는 이날 고양 데이원 점퍼스로 구단명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KBL 이사회는 이날 아시아쿼터 선수 제도 개선, 외국인선수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아시아쿼터 선수는 국내 자유계약선수(FA)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쿼터 선수의 FA 계약은 외국인선수 방식을 적용해 FA 보상없이 원 소속구단에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했다. 또 아시아쿼터 선수 에이전트 등록제를 시행해 에이전트 비용을 선수 부담에서 구단 부담(계약 연도 연봉의 10%)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선수 급여 지급 방식이 세전 기준에서 세후 기준으로 변경되고, 최대 보수 선수의 상한액이 60만 달러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선수 계약서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서울 삼성 조동용 신임 단장을 이사로 보선했다.

광주체육 태권도, 전국대회 금1·은1·동2 수확

남중부 라이트급 이현준, 64강부터 8강까지 1회전도 내주지 않은 퍼펙트 경기

광주체육중학교 태권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중학교 태권도팀이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0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해 남중부 종합 3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남중부 라이트급에 출전한 이현준은 64강부터 8강까지 1회전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천안 성정중 조민우에게 2회전을 내줬지만 나머지를 모두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마지막 일전에서 이현준은 청주중 이준혁을 만나 얼굴 내리치기로 상대를

압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현준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평화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해 전국대회 2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안성민은 남중부 밴텀급에 출전해 결승에서 패해 은메달. 여중부 라이트급 강한별은 준결승전에서 전주 기린중 박수연에게 지면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또 여중부 미들급 백승연도 준결승 경기에서 달천중 김도연에게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 이준재 교장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달획득이 어려운 태권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남아있는 전국대회에서도 메달이 기대된다"며 "좋은 팀 분위기를 유지해 울



광주체육중학교 태권도팀 이현준(사진 가운데).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산에서 열리는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서울 잠정동 엠버서더서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하고 최순호(1세대) 홍명보(2세대) 신태용(3세대) 이동국(4세대)을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헌액했다.

지도자부문에는 김정남, 공헌자부문에는 박태준이 선정됐다.

올해 선수 부문 헌액자는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역대 최고 선수들을 각 10년의 세대별로 1명씩 총 4명을 선정했다. 지도자와 공헌자는 각 1명씩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앞으로 2년마다 헌액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선수부문 헌액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왼쪽부터),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